

【발표논문】

근대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 프레임에 관한 재고

친 광(秦 方)

번역 : 김단실 (金丹實)

본 논문은 20세기 초반 중국 여성들의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경험을 조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 “해방” 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른바 모빌리티는 이 시기 일부 양반(중국에서는 “사신士紳”이라 칭함) 계층 출신 여성들이 여학(女學), 자선慈善 혹은 정치운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그녀들의 신체 이미지 또는 담론이 다양한 공공(公共)공간에 두루 나타나 회자된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모빌리티 경험은 물질적으로 19세기 후반 신식 교통수단 및 근대 대중매체의 발흥과 맞물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유폐”로부터 “풀어주기”로 전환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속에서 여성의 모빌리티 경험을 낙관시키고 미화했고 모빌리티는 여성 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모빌리티에 대한 이러한 승양은 역사나 역사서술면에 있어서, 당시 보통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사실상 근대성이 지닌 진보적 해방적 특징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은 결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 이 담론에는 실은 식민주의 언론패권의 역사적 프레임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빌리티에 부착된 여성 “해방” 사상에 대해 고도의 경계심을 품어야 할 것이다.

1905년 추근秋瑾(1875-1907)은 젊은 여성들의 일본유학을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은 낭만 넘치는 글을 남긴바 있다. “우리 나라 자매들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허락된 기간 또한 짧아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모두 가벼운 차림으로 닫힌 규방을 나와 즐겁게 기선 타고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예비수업을 하였다”¹ 사실상 20세기 초반 추근이 그러했듯
집밖 세상에 대한 낙관적 상상에 설레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양반 계층 출신 여성들은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하여 또는 국가 민족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주 집을 나섰고 도시, 성(省), 심지어 국경까지
넘나들면서 공적 사적 공간을 이동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당시 공공공간에서 가장 활약했던
여교사와 여학생이 그 예라 할수 있다. 여학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깊숙한 규방에 기거하던 여성들이
가정을 나와 교편을 잡거나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 가까운 곳으로는 매일 집을 나서 도보로 학교에 갔고
때로는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서 출발해 도시의 기타 공공공간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멀리로는
증기선이나 기차 등 근대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학교로 갔고 심지어 외국에
건너가서 여교사 또는 여학생의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러한 모빌리티는 신체 이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여성의 언론 문자 심지어 사진 이미지가
세간에서 전파 유통됨도 이에 포함된다.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청나라 말기 여학의 사진을
예로 들면 19세기말 20세기초엽 촬영술이 도시에 널리 퍼져 인기를 모으면서 여성 교사와 여학생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진을 서로 선물하거나 출판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퍼뜨렸다. 사진
촬영과 유통은 신체의 이동처럼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유전 범위와 영향이 신체의 이동
못지 않았다. 사진은 비록 문자처럼 자체 해석시스템은 없어도 촬영한 이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극명하게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준다. 인물이 취한 포즈, 의상, 액세서리와 배경 등이 피사체의 신분을
나타낼 뿐더러 그 사진이 세간에 전해지는 경로 역시 자기설명의 유효한 수단이다. 이 점에서 신체의
이동이든 이미지의 전파이든 모두 “중요한 능동성의 장”을 형성한다² 그 속에서 여성들은 본인의
신체, 행위, 이미지와 사회관계에 대한 성찰과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성별 규범과

¹ 秋瑾: 《〈實踐女學校附屬清國女子師範工藝速成科略章〉啟事》, 郭長海編: 《秋瑾全集箋注》, 長春: 吉林出版社, 2003년, 제 368 쪽.

²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3, p. x.

도덕의 경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보다 큰 차원에서 모빌리티가 중요한 까닭은 청조 말기 여성들의 외부 체험이 이로 인해 풍부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를 통해 “유폐(幽閉)”에서 “풀어주기(釋放)”으로 바뀐 시대적 담론의 변화를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중국사회에서 특히 송宋 이후 유가사상이 세속화됨에 따라 중국 여성들은 대가 아늑함 단아함 정숙함과 조용함(幽、嫺、貞、靜)을 도덕행위규범 삼아 왔었다. 물론 내외분별을 지킨다고 해서 실생활속에서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실은 정반대였다. 명청(明清)역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명청 시기만큼은 양반士紳계층 여성들이 언제든지 외출하여 친지를 만나고 교외에 소풍 가고 절당에도 다녔고 때로는 가정교사를 맡아 다른 집에서 식숙하거나 가족들과 먼 여행길을 떠나기도 하고 가사를 도맡기도 했다³. 단지 그녀들은 외출시 외계와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하는 처신으로 개인도덕과 사회지위를 드러내고 실천했었다. 이러한 자아행위규범과 공공공간에 대한 경계심은 근대까지 이어졌다. 예컨대 중국번(曾國藩)의 딸 증지편(曾紀芬 (1852-1942))은 본인이 작성한 연보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매들이 하는 대로 총독아문밖을 한발작도 나간 일이 없었다.”⁴ 증씨가 청년시절에 내외유별이라는 규범을 실천했을 뿐만아니라 80 대 고령에 연보를 수정하면서 본인이 그 시절 규범을 충실히 지켰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퍼그나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아늑함幽”을 숭상하는 담론과 실천은 19 세기 후반부터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 건너온 서양인(주로 선교사)과 중국의 엘리트계층이 여성해방자를 자처하면서 이에 상응한 규방에 갇히고 노리개로 전락한 중국 여성상을 만들어냈고 여성이 그윽한 집안에 있으면서 행동거지가 단정함을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선택한 “아늑함幽”이라는 덕목이

³ Timothy Brook, *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 182-185;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115-142, 219-224;

⁴ 《崇德老人自訂年譜》，李又寧編：《근대中華여성自叙詩文選》，제 1 집，台北：聯經事業出版公司，1980 년，제 15 쪽。

점차적으로 수동적이며 무력함의 뉴앙스를 내포한“간힘困”이란 惡俗으로 지목되었다.예컨대 林樂知 (Young J.Allen) 의 “유폐”론은 전형적 담론이다 그는 중국 여성을 둘러싼 3대 악습의 두번째로 “유폐”를 열거했다.“중국의 지체높은 여자는 문밖의 악습에 물들까 우려하여 평생 규방을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을 풀어주지 아니함은 교화가 아름답지 못함을 보여주고 영원히 여성을 가두는 것 또한 교화가 마침내 진진되지 아니함을 말해주도다”⁵ 따라서 林樂知 (Young J.Allen) 는 “풀어주기(釋放)”라는 위당을 권장하면서 “유폐(幽閉)”를 타파하는 처방으로 삼았다.“이른바 풀어주기란 무엇인가? 世人을 풀어줌이 첫째로 요긴한 과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을 풀어주는 것이 동방 여러나라들을 구원하는 좋은 방법이라 중국은 특히 심각하니 증상에 따른 약을 투여하는 바 이 처방 아니면 효과를 보지 못할터이다”⁶.선교사와 중국 엘리트층이 재서술하고 해석 및 선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 여성들이 과거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깊숙한 규방 ” 라이프 스타일과 이와 맞물린 도덕의의가 이 시기에 처절한 전환을 맞이했고 중국 여성들의 원죄로 되어 변혁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규방에 갇힌 여성상과 선명히 대조되는 것이 같은 시기에 형성되어 칭송의 대상이 된 과감히 곤궁을 박차고 나오는 외향적이고 발랄한 신女性像이었다. 중국 여성 나아가서 광범위한 동방 여성들에게 “결연히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주체가 되라고 “널리 벼를 사귀라. 속박을 벗어나 번개처럼 성난 파도처럼 나오라. 그대들의 진보의 속도는 무섭다 ”라는 식의 기대가 쏟아졌다⁷ 오로지 막아선 벽을 깨야 여성들은 자유로운 신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여성 기질에 관한 담론의 이같은 변화는 청 말기 중국 여성들의 신체, 언어, 이미지 심지어 주장까지 현실과 상상공간을 넘나들게 만든 모빌리티에 합리성과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⁵林樂知撰、任保羅述：《論中國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년제 169기，제 7-8쪽。

⁶林樂知撰、任保羅述：《論中國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년제 169기，제 7쪽。

⁷《동방女界의 新현상》，《만국공보》，1906년제 215기，제 63-64쪽。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바는 청조 말기의 모빌리티 담론이 보여준 근대성의 진보적 개방적 문명적 특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낙관적 상상과 미화와 별개로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길은 지극히 곡절적이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女學을 위해、독립을 위해 도시공간과 매체 공간을 오갈때 모빌리티가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꾼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内外분별과 양천지별良賤之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로 인해 양반 출신 여성들의 문명적 여성상이 외려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본디 모빌리티를 숭앙했던 사회분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적 성별 규범을 견지 강화하게 만들었으므로 결국은 “자유롭지만 도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혼합적인 여성 기질이 형성되었다.⁸

앞서 신나게 기선 타고 일본 가자고 여성들을 고무했던 秋瑾이지만 자매들한테 숨긴 사실이 있었는데 그녀는 여행중 내내 왜도(倭刀) 를 한자루 지녀야 할 필요가 있었다.秋瑾의 벗 우지잉吳芝瑛이 회상하기를 “여사는 일본에서 귀국길에 상하이로 거치며 힘든 유학상황을 말씀할 때 신규 입수한 왜도(倭刀)를 보여주면서 ‘힘 약한 여자의 홀몸으로 만리 구도의 길 떠나 3 등실 기선 타고 수차례 왕복하면서 쿨리 등 잡부들속에 섞여 먼 길 무더위에 쓰러진 일도 여러번이었다.자위수단은 일시도 내 몸을 떠난적 없는 이 칼뿐이었다’”⁹라고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기생과 신여성은 모두 사진 촬영을 많이 했는데 전자는 촬영패션의 선도자이기도 했다. 신여성들은 양천良賤구분을 강조하기 위해 촬영시 흔히 포즈、의상、배경 등 디테일로 이들과 차별화함으로서 자신의 문명 및 현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게다가 대부분 신여성의 사진은 근대적 계몽과 계발을 취지로 발간되는 진보적 정기간행물 (특히 여성잡지) 에 게재되었다.¹⁰이 부류 간행물의 창간인들은 여성교육、젠더평등、국가와 민족 위기 등 시대적 어젠더에 관심이 많았다.신여성들의 사진이 세속적 오락 취향의 태브로이드 신문에 실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말하자면

⁸純夫: 《女子교육》(其一), 《중국女報》, 1907 년제 2 기, 張玉法、李永寧編: 《근대중국女權운동史料》, 台北: 龍文出版社, 1995 년, 제 642 쪽.

⁹吳芝瑛: 《記秋女俠遺事》, 中華書局上海編集所編: 《秋瑾集》, 上海: 中華書局, 1960 년, 제 190 쪽.

¹⁰煉石: 《發刊詞》, 《중국新女界雜誌》, 1907 년제 1 기, 제 3 쪽. 이들과의

신여성과 유명한 기생은 모두 대중의 응시에 노출되었으나 각기 다른 잡지에 실리거나 사진의 유전 경로가 다른 것이 양천良賤을 가르는 분계선이 되었기에 신여성들은 대중의 응시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문명성과 진보성을 보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것은 이같은 모빌리티에 대한 숭앙이 실은 농후한 권력적 담론의 침투하에 형성된 일종 상상이고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근대성이 지닌 진보, 개방과 발전이란 특질을 바라보는 낙관적 상상과 지나친 미화의 반영이라는 점이다.이 경향은 21 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설령 가장 비판적인 페미니즘 학자들조차 아직도 이에 대한 경각성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Elizabeth A.Pritchard가 날카롭게 지적했 듯이 서양의 젠더역사연구에서 여성사분야 학자들이 무의식간에 모빌리티와 서구의 포스트계몽시대의 발전 및 진보에 관한 담론을 연결 시켰고 그 결과 이른바 해방성을 설명하는 프레임이 때로는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함정이 되었다.¹¹

다시 추근의 사례를 보자. 이들 신여성은 대중을 상대로 홍보할때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지만 사적 교류와 현실생활속에서는 신형 교통수단과 모빌리티 경험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이 경계심은 여성해방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담론이 집을 나가도록 여성들을 부추겼지만 이 시기는 근대적 담론 자체 (예를 들면 내셔널리즘, 페미니즘 등)가 지속적으로 개념의 경계와 의의를 형성해가는 중이었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여성들이 준수하고 실천할 온전한 규범을 제공하지 못한데서 기인된다.행위규범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했다.왜냐하면 규범은 일상생활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비로소 체화되어 자연스레 한 인간의 심리적 정체성과 행위준칙이 되기 때문이다¹².추근이 좋은 사례이다. 그녀가 규방을 나와 기선에 앉아 중일간을 넘나들때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와 해방에로의 동경은 그녀가 기타 사회계층 남성들과 같은 선실을 사용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결코 알려주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그녀가 택한 것은 아주 전통적인 자위수단이였다.

¹¹ Elizabeth A. Pritchard, "The Way Out West: Development and the Rhetoric of Mobility in Postmodern Feminist Theory," *Hypatia* 15:3 (Summer 2000): 57.

¹² Tani E. Barlow, "Theorizing Woman: *Funti, Guojia, Jiating*," in *Body, Subject and Power in China*, eds., Angela Zito and Tani E. Barl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61.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모빌리티 경험에 환호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여성“해방”이라는 관행적 사유패턴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성찰에는 두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성“해방”은 실제 역사경험이자 실존인 동시에 학술적 차원 및 사회운동 차원의 이론분석 프레임이며 사고패턴이기도 한 것이다.

근대이래 수많은 사회 사조와 관념들이 구미와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건너 왔다.국가, 민주, 과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관념과 단어들이 중국에 전파되어 수용되는 과정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성“해방”에 내재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패권에 대해 경각심이 가장 미약하다.그 결과 여성“해방”은 근대중국 여성사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 키워드임과 동시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없이 사용하는 자명한 단어로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나는 다음 두 방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동원되는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도구성이다.근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민족주의자, 페미니스트거나 정당조직 또는 국가정권을 막는하고 흔히 여성 동원을 중요한 어젠더로 삼았고 여성을 국가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하였기에 여성해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그 결과로 20세기 심지어 21세기에 도 여성 해방을 지지하든 반대하든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우리들이 여성문제를 사고하는 기준선이 되고 일종 일상과 상투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여성해방의 결과로 보면 신체의 개변, 교육의 획득, 직업적 발전, 경제적 독립, 자주의식 형성 등을 포함해 근대여성들의 생활경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어느 순간부터 “해방”을 통하여 여성들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탈바꿈했으니 이는 얼마나 고무적인 성과인가!

그러나 Joan W. Scott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성들이 주체성을 획득하면 곧 해방의 일종 승라라고 착각하지만 주체성이라는 어젠더가 어찌면 가짜명제 일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도

성찰한 적 없다. 13 왜 우리는 주체성을 근대여성해방 승리의 하나의 징표라고 보는가? 이 물음은 전통적 여성은 주체성이 결여된 집단이라고 보는 우리의 잠재적 인식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결핍-획득, 전통-현대라는 이원대립적 프레임은 우리가 기타 연구영역에서는 늘 반성하는 바가 아닌가? 무엇때문에 유독 여성“해방” 혹은 여성사에서만 이처럼 “해방”을 낙관하고 미화하면서 승리를 경축하는 것 일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여성사를 기술하고 해석할때 사용되는 기본 프레임과 개념에 대해 역사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며 21 세기를 사는 우리가 역시나 너무 안이하게 근대성이란 안전지대 (comfort zone) 안에서 이러한 프레임과 개념을 당연시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

필자는 예를 들어, 역사성을 부여받아 마땅한 일부 어젠더와 사유가 어떤식으로 21 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 의해 지극히 자연스레 수용되어 역사와 현실속 여성문제에 대한 상상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부류의 경력들은 흔히 “해방”으로 간주된다.예: 전족 해제, 학교교육을 받은 것, 집을 나온 것, 모빌리티, 이익 창출, 혼인자유 등 ; 반대로 다른 어떤 경력은 해방의 대립면인 “억압”으로 간주된다. 예:전족, 문맹, 집에만 갇힌 것,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 부모가 배우자를 정하는 포판 혼인(包辦婚姻)등. 그런데 우리는 전자가 어떤 이유로 선택받아 “해방”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후자는 어떻게 이와 상반된 “억압”프레임에 놓이게 되었는지 고민해본적이 별로 없다. 이는 청조 말기부터 여성기질을 정의하는 체계 (defining system) 에 발생한 변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오랫동안 양반(士紳)계층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유가儒家성별규범의 규정자, 실천자이자 수호자로 자처해 왔다.그러나 청조 말기에 이르러 그들 스스로 결정했던 신분 징표들이 하나씩 부정당하는것을 목도했다. 전족은 야만의 심볼이고 가정내 생활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나눠챙기는 병폐이고 딸, 안해, 어머니로서의 삶은 가족만 알고 국가를 무시한다고 비판 받았고. 뛰어난 재원의 역할은 국가

¹³ Joan W. Scott, “The Evidence of Experience,” *Critical Inquiry*, 17:4 (Summer, 1991): 773-797.

민족이 봉착한 위기와 친화적이 아니기에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이렇듯 그들의 엘리트 위상은 직접적 도전에 직면한다.이 국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리소스와 계층적 우위를 살려 전족해제, 학교교육, 공공도덕, 국가민족 등 새로운 근대의 특징에 맞는 “존비尊卑가치 위계질서”¹⁴를 재정립함으로써 종전대로 새로운 신분사회의 최상단에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여성 엘리트들이 이처럼 스스로 권리부여하고 본인들이 마땅히 여성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자처하는 마음가짐은 양반(士紳)계층 출신자의 뿌리깊은 엘리트의식과 그 리소스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사회의 계층구조 위에 이같은 근대 표지를 준칙으로 한 새로운 정치권력이 들어서게 된다.이들 여성 엘리트들은 신형 여성문화, 성별 메커니즘과 사회위계 시스템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 여성 지위론. 말하자면 “여성의 수준은 한 국가의 문명정도의 상징이다”라는 논리인데 오늘날도 이 관념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이미 의심할 나위 없는 진리로 굳어진 듯 하다.그런데 사실상 이 관점은 19세기말 서양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과 동시에 중국에 전래한 것이다.林樂知 등 선교사가 《만국공보》에 발표한 문장에서 “한 나라의 교화를 논하려면 마땅히 여인들의 지위를 살펴 그 나라의 교화 등급을 정할지다.서방의 문명교화된 나라는 여인을 평등하게 대하지만 동방 반교화 국가에서는 여인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교화가 아니된 자들은 여인을 노복이나 짐승과 다름없이 대한다. 중화는 동방 교화지대국인지라 여인을 대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 나라의 교화 등급을 바로 알수 있을지어다.”¹⁵그들은 지위와 성별, 국가민족을 연관 지어 국가를 단위로 한 하나의 등급 관념을 구성해 냈다.이 관념은 세계적 식민질서와 고도로 일치했다 예컨대 여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를 논할때마다 林樂知 등은 흔히 인도, 고려, 중국과 같은 식민 확장 에 있어서 열세에 처한 나라들을 거론했다.그 후 페미니스트나 내셔널리스트들은 아무런 의문도 없이 여성의 지위로 일개 국가와 민족을 평하는 기준을 받아들였고 그 배후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¹⁴劉人鵬：《근대중국女權論述：国族、翻譯과 性別정치》，台北：學生書局，2000년，제 166-167쪽。

¹⁵林樂知撰、任保羅述：《論중국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년제 169기，제 7쪽。

셋, 남녀젠더평등. 근대 중국역사에서 여성들은 절대 평등과 상대적평등 사이에서 흔들렸음을 볼수 있는데, 이로하여 수많은 역사문제가 야기되었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 양극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집 밖에 나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여성으로서 가사 노동, 출산과 자녀 양육 등 가정내의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구당한다. 전자와 후자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훌륭하게 해내거나 못 해내면 가차없이 비판과 부정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 여성의 이상상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수퍼우먼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 특이 아이를 완벽하게 돌보는 여자여야만 한다.

젠더 평등문제는 근대이래의 여성해방 프레임속에 나타난 일종 성별 본질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 유가의 위계질서 체계에 있어서 남녀, 건곤乾坤, 음양陰陽 등은 모두 관계적 존재로서 상호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남녀는 동일한 “인간”이란 평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역시 “有別”하여 상하구분이 있는 것이다.¹⁶ 근대에 와서 유가 윤리규범중의 관계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도전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뒤엎어져 점차적으로 John Fitzgerald 이 제기한 이른바 “부류별 정체성”(categorical identity)이 형성된다. “여성”이라는 부류를 예로 들면 이 부류중에서 모든 여성들은 공통의 성별특질을 향유하여 마땅하다. 설령 추근과 같은 스스로 남편과 자녀결을 떠나 일본에 유학한 여성도 “여계의 롤모델”이라고 불렸다. 이같이 여성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젠더 평등을 일종의 사회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출현 및 국민을 하나의 새로운 도덕질서 유형으로 간주하는 사상과 맥이 닿아 있고 근대국가평등과 종족평등을 이상적 질서로 간주함도 마찬가지로 맥락 이다.¹⁷ 예컨대 청왕조 말기에 많은 신여성이 “여계(界)”를 자칭하면서 “남계”에 상부상조를 호소했다. 또한 “여계”와 “상계” “군계”, “학계”와 같이 병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남성계는

¹⁶리우롄핑 (劉人鵬) : 《근대중국女權논술》, 제 1-72 페이지.

¹⁷John Fitzgerald, “Equality, Modernity, and Gender in Chinese Nationalism,” in Doris Croissant, Catherine Vance Yeh, and Joshua S. Mostow eds., *Performing ‘Nation:’ Gender Politics in Literature, Theater, and the Visual Arts of China and Japan, 1880-1940*, Leiden; Boston: Brill, 2008, p. 24.

유독 여계와 대응관계를 형성할 따름이고 기타 각계와 나란히 열거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상계, 군계, 공계, 학계 등은 당연히 남성들로 구성된 “계”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근대성 기준에 따라 해방된 이후에도 무엇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신세계의 쾌락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정반대로 오늘도 여전히 거둬 그리고 빈번히 예전과 다르지않은 고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과거에 우리는 이와같은 가정내 및 가정외로부터의 이중 부담이 발생한 원인은 여성해방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해석했고 따라서 중간에 각종 좌절이 발생한다해도 그 성질은 보수적인 것이요 시간상으로는 일시적일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의 발걸음과 빛나는 미래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방”이 철저한지 아닌지를 가늠한 단 말인가? 혹자는 우리가 접근방식을 바꿔 대관절 해방이 철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해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애초부터 문제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가할까? 우리는 프레임 자체 내적인 관적 담론과 기준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삼았는 상황이 다만 도난과 협박을 그대로 수반후 이를 이용하여 중산사회 여을 개화자 했다결은 중산사회에서 삼았던 어떤 산성이 일진 계반성이 나타났고 여성은 어떤 계반성에 대해 저항했다(사실상 남성 역시 마찬가지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 여성해방이라는 사유계의 역할을 생각으로 안치고 여성들이 해방된 후 작한 일을 복습해인 국을 염중케 주사한서 국가 사회 및 제적 면서 이 불찬한 국에 어떤으로 대해반 여성들이 스스로 잔한 선을 할수 있게 되고 — “해방을 택한 “억압을 택한”으로 인해 정적 압력 도취 근경과 무은 생활담에 사하는 일은 없게 할수 있게 잔하게 고해야 한다